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다

성경말씀: 전1:1-18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 상황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일들로 힘이 들다.

추잡한 문화(드라마와 영화 등), 토막살인, 동성연애, 어린이 유괴, 어린이 성폭행, 정치권의 무한 싸움, 북한의 독재와 백성의 고통, 사상 갈등, 목사와 교회의 허무함

실망이 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솔로몬의 고백: 해 아래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허무하다. 영의 고통, 새것이 없다.

세 하늘: 창세기의 창조 때에 두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아래의 모든 일은 새것이 없다. 헛되다(vanity)

샌드버그라는 미국 시인: 인생은 양파와 같다. 한 겹 한 겹 벗겨나가면서 울기도 한다.

솔로몬의 결론: 인생은 수고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로 가득하다.

아무도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조절할 수도 없다.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이다.

그러니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사용해야 한다.

만족해야 한다.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장막절에 읽는다.

솔로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들, 지혜로운 인물, 성전을 지은 자, 우상 숭배 하던 자, 회개한 사람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았다.

12지파 대신 12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감독자를 세워 치리하게 하였다(왕상4:7-19).

철권통치, 엄청나게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뉘었다.

시작은 겸손하였으나 세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방 여인들(이집트, 모압, 암몬) 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심지어 지혜와 미친 짓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해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17).

전12:6, “은 줄이 풀리고”, 요가, 명상, 만트라, 주술, 음악(록 음악, 랩 음악),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다.” 대부분의 왕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

말기에는 겨우 왕좌만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다.

결국 전도서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14,17).

개역성경처럼 ‘바람을 잡는 일이 아니다’.

결론: 12장 13-14절

당신은 어떤가? 영이 괴로운가? 아니면 즐거운가? ★★★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vanity, 38회, ‘수증기, 빈 것’, 속히 사라지면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 그의 재산, 그의 일, 그의 지혜, 그의 말, 자식, 영광, 명예(2:11), 이것이 영을 괴롭게 한다.

해 아래에는: 29회, 하늘 아래에는(1:13; 2:3; 3:1),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다.

전도서의 대부분에서 그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론을 맺는다.

1. 가난한 자가 학대를 당한다(4:1): 양극화(약5:1-6)
2. 꿈꾸는 자가 많다(5:7). 특히 교회에서
3.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 않는다(5:8).
4. 유물론자, 진화론자 시장경제(5:10),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5. 옛날이 좋다고 말한다(7:10).
6. 죄를 집행하지 않는다(8:11). 사형 시킬 자들을 내버려 둔다. 성 범죄자 전자 발찌 등
7. 예상대로 안 된다(9:11).
8. 지도자들이 무능하다(10:6-7).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9. 제사장과 대언자들이 헛된 말로 백성을 유혹한다(렘8:11; 겔13:10). 거기에 넘어간다. 한상열

10. 거짓 대언자와 그리스도의 출현(마24:24), 큰 표적와 이적
11.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려 한다(롬10:1-3).
12. 우상을 섬긴다(행17). 돌덩어리, 나뭇조각
13.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
14.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있다. 가정이 깨진다.

이것들이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한다. 고치려고 하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다. 영이 더 괴롭다. ★★★
 새것은 다른 공간에서 와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다.

둘째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영을 괴롭게 한다.

특히 종교 생활은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한다.

이것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영의 고통의 문제, 헛된 것의 문제
 십자가 사건, 침례(롬6:3-5)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가? ★★★

2.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스라엘의 부활(사43:18-21)

아담의 타락, 지구의 황폐화, 천년왕국이 필요하다.

팔레스타인 땅의 변화, 이스라엘의 귀환(1948년)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씨에서 나오는 통치자가 직접 이 땅을 다스리는 기간이 있다.

환난기의 성전(마24),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

3. 새 하늘과 새 땅(계21장)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21:5)

헛되고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없어진다(21:3-8).

3.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5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6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7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것을 받았는가?

사람의 힘으로, 땅의 일로는 불가능하다.

구원 ★★★

휴거와 부활과 재림(살전4:16-17) ★★★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